

1차 통신선 차단, 2차 연락사무소 폭파...몰아치는 보복조치

北, 4일 담화후 12일만에 행동...성과없는 남북관계·대북빠리에 분노 '미 합의 이행' 우회 압박...개성공단 완전 철거·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포착한 영상을 공개했다. 위편 사진은 2019년 5월 파주 도라 전방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대의 모습. 아래 사진은 국방부가 공개한 것으로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화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연락사무소는 물론 주변 건물의 모든 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공언대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첫 보복조치로 지난 9일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에 이어 2차 행동으로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남북관계 단절 담화를 내놓은 지 불과 12일 만에 보복 조치를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데는 성과 없는 남북관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측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처음 경고한 시점은 불과 이달 4일이다. 당시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인 5일 대남사업부서인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별도 담화를 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북한은 나흘뒤인 지난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모든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소식을 보도하며 이것이 '첫 단계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연달아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한 셈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다시 김 제1부부장이 나서 "벌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건물 폭파를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개성 연락사무소를 선안대로 형태도 없이 완전히 폭파했다. 조선중앙방송도 폭파 이후 약 2시간 만에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개성공업 지구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했다.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연속적인 보복을 호언장담한 만큼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아침 '공개보도' 형식으로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고 대남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자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 철거와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면서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보복 조치를 잇달아 실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 회의에서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에 맞선 대결 조치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처럼 숨돌릴 틈도 없게 속도로 대결 조치를 이행하는 데는 최고지도자를 비난한 대북전단의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쌓여온 불만이 그만큼 큰 것임을 보여준다. 남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을 믿고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걸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데다 남측이 한미공조를 우선하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이 실제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결국 북한은 더는 미련도 기대도 두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한 셈이다. 아울러 파국적인 조치를 잇달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특히 미국 행정부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회적으로 자극하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주요 일지

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 첫 제품 생산

2007년 12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의사무소 완공

2016년 2.10 정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반발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채택

9.14 개성공단 내 과거 남북교류협력의사무소 건물 보수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련

2020년

3.22 김영정 제1부부장, 대북전단 살포 비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거론

6.13 김영정,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시사

6.16 북한,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연합뉴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8년

4.27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판문점선언 채택)

5.2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5.26 2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9.14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9.18~20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19일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

10.25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

11.1 남북,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12.26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2019년

3.22 북측 연락사무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 통보했다가 사흘만에 복귀

6.30 남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2020년

3.3 김영정 제1부부장, 북측 훈련에 유감 표명한 청와대를 직접 비난하는 담화 발표

3.4~5 남북 정상, 코로나19 극복 등의 내용을 담은 친서 주고받음

6.4 김영정 제1부부장, 대북전단 살포 비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거론

6.9 북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의 완전 차단·폐기 통보

6.13 김영정,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시사

6.16 북한,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 배려(전단) 살포 예고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연합뉴스

21개월만에 처참히 사라진 '판문점 선언' 결실

'하노이 노딜' 이후 파행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탄생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만에 완파돼 사라졌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고쳐 연락사무소 청사로 사용했다. 2층과 4층에 각각 남·북 인력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대면 소통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줬다. 남북이 24시간·365일 안정적인 소통을 할

채널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개소 이후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를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엔 남북 소장 회의를 중단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 30일부터는 남측 인력이 철수, 대면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에도 남북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비대면 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등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발표하면서 통화는 차단됐다. /연합뉴스

中 "한반도 평화·안정 희망" 日 "美·韓과 협력"

러시아 언론 긴급 보도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중국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자제를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현 정세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이 같이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한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상황에 대해 묻자 "관련 상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

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정세를 주시하는 한편, 경제·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묻자 "한국 정부의 발표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언론도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소식을 긴급 뉴스로 신속히 보도했다. 관영 타스 통신은 이날 연합뉴스를 인용해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사실을 속보로 전한 뒤 뒤이어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확인 보도도 소개했다. 통신은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단행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으며 군 준비태세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6. 2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6.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침술경력50년

금침을 한번만 맞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력감퇴, 중풍이해, 각종 암, 불치통증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홍익 광고 제2020-02호

분할 합병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 06월 16일 주식회사 효성종합기술(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식회사 메그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를 전 기공사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은 '을'과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을'이 포괄승계하며, '갑'과 '을'은 모두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자산의채무(상대금 53039 원)에 의거는 '을'이 연대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합병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주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권을 제출하지 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함.

2020년 06월 17일

'갑' : 주식회사 효성종합기술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도산길5로 45
대표이사: 이병용

'을' : 주식회사 메그리
전라남도 장성군 동하면 전자동공단2길 55
대표이사: 박복희

정정 공고

본보 2020년 5월 26일자에 게재된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중 본문의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갑')를 현대정보기술서비스 주식회사('갑')로 하단 '갑'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를 '갑' 현대정보기술서비스 주식회사로 대표이사 안광선을 사내이사 안광선으로 정정공고함.

분할 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인피니티(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삼보(이하 '을'이라 함)는 시지 2020년 06월 16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 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지 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함

시지 2020년 06월 17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인피니티(주) (법인등록번호: 201311-0078560)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읍신공원길 20(연양동)
대표이사 : 이강호

'을' 상 호 : 주식회사 삼보(주) (법인등록번호: 201311-0065243)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읍신공원길 40(유원동)
사내이사 : 김태균

분할 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그린솔라(이하 '갑')와 주식회사 연양전력(이하 '을')은(는) 2020년 6월 16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53039원의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금은 재산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부담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갑' 주식회사 그린솔라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9(덕영동)
대표이사 유승중

'을' 주식회사 연양전력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20번길 3-21(내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기동

분할 합병공고

2020년 6월 16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그린솔라(이하 '갑')와 주식회사 연양전력(이하 '을')은(는) 2020년 6월 16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금강엔지니어(이하 '을')와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계류계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갑 주식회사 그린솔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 42-2(지양동)
대표이사 김지연

을 주식회사 금강엔지니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685
대표이사 양우석

산행안내

6월17일(수)

▲광주청룡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 타이어뱅크알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강화동 현 대물류양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20일(토)

▲광주금강산악회 (6월20일)토) 동명 천혜비경 비진도 외산 선유봉, 불선동 롯데마트알 06:10, 교직원공제회관 알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알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6월24일(수)

▲광주청룡산악회 (6월24일)수) 전북 임실 오봉산-국사봉 산행, 백운로타리 타이어뱅크알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강화동 현 대물류양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